

전시회 소식

INDO INTERTEX 2022 참가업체 모집

202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섬유기계전시회 (INDO INTERTEX 2022 / 2022.08.10 ~ 08.13) 의 본격적인 참가업체 모집이 시작되었다. 2020년에 개최 예정이었던 전시회가 코로나로 2년이 연기되어 개최되는 만큼 침체되었던 동남아시아의 섬유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전시회는 홀수년도와 짝수년도의 개최 규모가 상이한데, 홀수년도에는 전시기간 3일·전시면적 20,000㎡, 짝수년도에는 전시기간 4일·전시면적 33,000㎡으로 각각 번갈아 개최된다. 짝수년도인 올해는 섬유 프린팅 전시회 (INDO TEXPRINT 2022), 염안료 전시회 (INDO DYECHEM 2022) 가 동시 개최되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최근에 개최되었던 2019년 전시회에서는 전시면적 21,400㎡, 참가업체 500개사, 20개국 12,537명의 관람객 방문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전시회의 한국관 참가 예정 업체는 유진기계, (주)에이스기계, (주)동원롤, 나원기계, (주)삼일산업, (주)제이티프리스존, (주)해인기계, 태신아이엔티, 티엔지텍(주), (주)삼화기계 등 총 10개사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국고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INDO INTERTEX 2019 현장 전경

무역 및 시장정보

우즈베키스탄 2022~2026년 발전전략

우즈베키스탄 2022~2026년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살펴본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향후 경제발전 방향은 대외 개방을 견지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농업과 제조업의 발전을 꾀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섬유산업에서는 단순 원면 생산에서 탈피하여 추가 공정 (염색, 디자인, 봉제) 관련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고 이를 위해 신규설비, 원부자재, 신규기술 등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자동차 제조업, 제약·의료, 그리고 IT 분야도 대동소이하다.

우리나라와는 단순 투자진출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조 설비 도입이나 첨단기술 수출 또는 운영 지원에 따른 기술료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높은 관세의 장벽이 있고 이중 내륙국가로 물류 상의 어려움 등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하지만 유희기술·장비를 이전 (생산 3년 이내) 하여 생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조업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ODA와 EDCF같은 국제 공여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EDCF 기본약정에 서명해 2021~2023년 차관 지원 한도액을 종전의 2배 수준인 10억 달러로 증액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신북방권의 중점 협력국가로서 공공인프라 개발협력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의 현지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미르지요예프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들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민관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2030년 세계 화학섬유 제품 시장규모

387억 달러로 확대 전망

시장조사 회사인 Reports and Data에 따르면 세계 화학 섬유 제품시장은 연 4.3% 성장하여 2030년에는 386.6억 달러의 시장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가정용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 패션 트렌드의 변화 등이다. 또한, 화학섬유뿐만 아니라 천연섬유에 대한 수요도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특히 인도가, 「Make in India」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활용하여 섬유 가공 단계로의 투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화학섬유협회>

■ 대만, Bottle용 PET 메이커의 수주가 호조

대만의 주요 PET Bottle용 폴리에스터 제조업체인 원동신세기(遠東新世紀),新光합섬(新光合纖), 역려(力麗)는 유가상승, 인플레이션, 물류·해운비용 상승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음료업체들의 PET Bottle용 폴리에스터 수요가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수주가 호조를 보여 2022년 2/4분기까지 주문량이 Full인 상태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의 PET Bottle용 폴리에스터 수요는 매년 3~4%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업계의 확장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원동신세기(遠東新世紀)는 음료 메이커의 PET Bottle용 폴리에스터 수요 증가에 가세하여 회수 Pellet (리사이클 PET :R-PET) 수요가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의 세계적인 움직임에 맞추어 증가하고 있어, 동사의 R-PET 2022년 출하량은 전년부터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新光합섬(新光合纖)은 R-PET의 수요 증가를 전망하고 동남아시아에 회수 PET 설비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연간 생산능력 약 21만톤 규모를 2022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증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화학섬유협회>

■ 덴마크 Fibertex, 부직포 가격인상 발표

덴마크의 대규모 부직포 업체인 Fibertex Nonwovens는 유럽 역내에서의 원자재 가격의 급등, 에너지·운송비의 상승,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부직포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원재료 비용이나 할증료 상승분을 가격에 점차 전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가격 인상폭은 거점마다 다르지만 대략 15~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출처 : 한국화학섬유협회>

■ 섬유기계 수출·입 실적 (2022년 1~2월)

		수 출	수 입
금액 (천\$)		380,590	141,380
국가별	중 국	20,725	78,451
	미 국	210,742	1,274
	일 본	3,911	3,900
	베트남	22,916	29,051
	유럽(계)	18,601	10,523

☞ 산업계 소식

■ KTX 서울역 대구경북 기업인 라운지 이용 안내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KTX 서울역 4층에 대구경북 기업인 라운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비즈니스 상담, 기업인 출장 휴게실 공간이 갖추어져 있으며, 인터넷, 문서편집기(W/P), 복사기, 팩스, 휴대폰 충전 및 뉴스 청취(TV, 신문 비치)가 가능하며, 간단한 음료 및 다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운지 위치 및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기업지원 서비스 ▶ 대구경북 기업인 라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구경북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출처 : 대구상공회의소>

❖ 회원사 동정

■ 일성기계공업, 생산공정개선 박차

1962년 창업 이래 지속적인 설비자동화 투자

국내 섬유염색가공 메이커 일성기계공업(주)(대표 김재영)이 공장 내 제조 설비 자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62년 창업 이래 품질 및 제품 신뢰성 향상을 통한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신 설비 도입과 설비 자동화에 매년 투자해 오고 있다. 동시에 현장 기술자들의 고령화와 제조업 기피에 따른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할 명확한 대안이라는 김재영 대표의 확신에서다. 가장 최근의 자동화 투자 사례는 지난 1월 2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김천 텐터 공장이다. 2020년 말 김천시와 투자양해각서 서명 후 공사에 착수해 김천 일반산업단지 내 대지 2만 평, 공장동 4,000평 규모의 텐터 전용 생산공장이 완공되어 본격 가동 중이다.

이어 오는 7월 4,000평 규모의 2차 전지 분리막 제조기계 전용 공장이 추가로 완공된다. 내년에도 4,000평 규모의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총 3개의 생산라인을 갖추게 된다. 일성기계공업의 주력 품목인 텐터기를 비롯해 2차 전지 분리막, 편광필름, 필름텐터, 건축자재 등 생산 제품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김천 텐터 전용 공장은 일성기계공업이 목표하는 설비 자동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현재 텐터 전용 공장의 자동화율은 80~90% 이상이다.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은 최첨단 장비에 있다. 레이저 절단기 등 최신 자동화설비는 물론 도장라인과 클린룸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중 연강 및 스테인레스강 파이프 전용 레이저 절단기계인 「FL 300 3D」는 국내에 5대 밖에 없는 고가의 장비다. 투자 여력이 있다는 업체들도 엄두를 내기 어려운 금액이다. 그럼에도 김재영 대표는 망설임 없이 이 장비에 거금을 투자했다. 기기 명에 붙어 있는 '3D' 명칭처럼 3D 프린팅이 연상되는 기기로, 오퍼레이터가 CAD에서 작업한 부품별 모델링 파일을 기기에 전송, 입력하면 모델링 그대로 구현된다. 특히 3D 절단헤드로 절단은 물론 코너, 최대 45°까지의 경사 작업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연강 절삭 후 작업자가 디테일한 부위를 일일이 깎고 다듬었던 공정이 추가로 진행됐다면 지금은 밀링, 드릴링, 펀칭 등의 작업을 기기 하나로 해결했다. 이로 인해 높은 정확도와 품질 향상은 기본, 불필요한 추가 공정이 사라짐에 따라 공정 시간 단축과 인력 대체, 비용 절감까지 기대효과는 그 이상이다.



파이프 전용 레이저 절단기 FL 300 3D

일성기계공업의 자동화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품질 향상과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더욱 강화된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도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자동화 설비 내 감지 센서들이 공정과정에서의 사고를 감지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다.

둘째, 자동화 설비는 기존 기술자에서 오퍼레이터라는 관리자로 그 역할 재정립의 계기를 마련했다. 기술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 효율성 하락과 신규 인력 확보 어려움 속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필수불가결한 공정을 제외하곤 과감하게 자동화로 대체함으로써 이 같은 고민들을 털어낼 수 있었다.

일성기계공업은 김천 텐터 전용공장에 추가적으로 작업장 안전과 효율적인 동선 활용을 위한 이송 자동화 시스템도 곧 구축할 예정이다. 이처럼 일성기계공업의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락)

기사 링크 <https://www.tinnews.co.kr/22447>

<출처 : TIN 뉴스>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소식

『보건·안전 섬유 산업 생태계 지원』 사업으로

경북지역 보건·안전 섬유 산업 생태계 활력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신산업 생태계 기반확충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경북지역에서 경북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공동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보건·안전 섬유소재 산업 생태계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보건·안전 분야 유망품목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와 주력제품 다양화 유도를 통한 기능성 섬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수요 기반의 「보건·안전 분야」 육성을 기반으로 국내 섬유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전통 섬유산업 관련 기업의 인증기반 장비연계를 통한 직접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품목 다각화와 수요연계 지향형 시제품제작 및 공정개선을 위한 주력지원, 인력양성·기술지도·인증 및 사업화를 통한 연계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진행하였으며, 현재 2차 년도 사업 마무리 단계이다. 2차년도 사업추진을 통해 주력지원(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및 연계지원(사업화, 인증)으로 61개사가 선정되어 89건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후속지원(기술지도, 인력양성, 사업화지원) 관련 80개사의 실적을 달성했다.

지원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안전 섬유소재 주력품목 다각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에 18개사를 지원했으며, 급증하는 보건·안전 섬유소재 수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단기 수요 대응형 고부가 시제품 제작에 17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했다. 또한, 보건·안전 소재분야 진입을 위한 장비개선 및 고도화를 목표로 생산제품의 안정적 품질확보를 위한 공정개선에 24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했으며, 제품품질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 및 시험평가지원과 품질관리 체계 인증지원에 14개사를 선정해 20건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10개 수혜기업 대상의 마케팅 홍보물 제작지원으로 성과확산을 위한 샘플, 홍보 동영상 및 브로슈어 제작 등 본 사업의 주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된 보건·안전 섬유소재제품의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현장 맞춤형 인프라 연계 및 수혜기업 맞춤형 애로기술해결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 1:1 연계, 기술지도에서는 12개사를 지원했다.

특히,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에서 지원한 공정개선지원 및 인증지원 수혜기업들 중 사업성과 우수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 ㈜한스인테크는 해외 의존도 높은 설비 공정개선 지원으로 보건·안전 제품을 다양한 폭에 대한 접착제 도포부 설비 공정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생산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 15억 29백만원의 매출성과와 2명의 고용창출을 달성했다.

▶ ㈜케이테크는 생산장비 고도화 공정개선, 성능평가 지원으로 방역보호용 제품 적용 목적 아라미드 코팅사 개발을 위한 압출 설비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하여 1억 18백만원 매출과 고용 1명의 성과를 창출했다.

▶ 경구산업은 해외 의존도 높은 설비 공정개선 지원으로 난연·준불연 성능의 압출 코팅사 사분할 헤드 및 노즐 제작을 통한 불량률 감소, 제품 안정성 확보로 1억98백만원 매출을 도출했다.



보건·안전 섬유소재 산업 생태계 지원사업 기업지원체계

<출처 : 복합재융합연구센터 김한국 책임연구원>